

다윗의 ‘예수 신앙’

(사도행전 2 : 22-36)

김 철 봉

(마산 제일교회 담임목사)

우리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통치자였던 다윗왕을 잘 압니다. 어린이들도 다윗왕을 잘 알고 좋아합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왕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 민족을 위한 헌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거인 골리앗을 용감하게 무찌른 무쌍한 용기, 그리고 그의 뛰어난 지혜와 총명, 후한 인간미 등을 좋아하며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다윗에 대하여 이런 점들만을 높이 평가하고 그만둔다고 하면 우리는 다윗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였으며, 얼마나 정확하게 믿고 있었는가를 보여 주는 시편 16장 가운데의 내용을 사도 베드로가 그의 설교 중에서 인용한 부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왜 하필 다윗의 예수에 대한 신앙을 인용하여 설교를 합니까? 유대인들은 ‘다윗’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다윗’이라고 하면 껌뻑 죽는 시늉을 할 정도로 흥분하고,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도 불렀으며, 지금도 자기 나라 국기를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다윗의 자손(후손)」이라는 사실에서 대단한 긍지와 민족을 느끼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다윗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놀라운 구원에 대하여 설교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도 베드로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들이 그토록 믿고 사랑하고 감사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 시간에 우리들이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고전 3 : 4-7).

1.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25)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빌 2:6). 또한 예수님의 근본은 태초요 상고입니다(미 5:2).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믿음을 가질 수 없고(엡 2:8-9, 마 16:17, 요 6:44),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고전 12:3).

다윗은 예수님께서 본래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믿었습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증거하신 적이 있습니다(요 17:5, 24, 8:58, 잠 8:30).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인 신앙은 예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실한 신자의 여부가 드러납니다.

2.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神人 兩性'을 믿었습니다(26)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 역사 세계 속에 오셨던 '사람'입니다(요 1:4, 딤펴 1:15). 다윗은 예수께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을 경험하실 수 있고 또 소유하셨다고 믿었습니다. 이 역시 놀라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섬겼던 사도들이 예수님의 人性을 증거하고 있습니다(눅 11:27, 12:50, 19:41, 요 4:6, 11:35, 히 2:18, 4:15, 5:7). 다윗이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도 인간적 면모를 지니신 분이었습니다.

3.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었습니다(27-28).

다윗의 신앙이 위대하고 복된 것은 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년 전의 구약 성도이면서 벌써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었다는 데 있습니다. 시각과 촉각을 동원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고서야 믿겠다는 도마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요 20:29)고 하신 말씀 그대로 참으로 차원 높은 믿음을 소유한 복된 신앙자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 16:15) 이 질문은 세상 끝날 때까지 주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정신만을 존경할 뿐,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의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예수 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또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신앙을 전제하므로 두 가지 신앙이 어우러진 신앙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부활의 은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고전 15:20).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예수 신앙’을 인정하시고 높이 평가하신 적이 있습니다(마 22:43~45). 베드로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신앙하였습니다(마 16:16, 요 6:68, 69, 행 2:32). 의심 많던 도마도 결국 예수님을 정확히 고백하고 믿었습니다(요 20:28).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부활’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고전 15:12, 19, 20, 22) 구약 성도 다윗의 부활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같은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노래와 신앙의 희망이 있습니까?

4.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믿었습니다(34~36).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거라지……”(34~35)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최후의 승리를 보장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는 어린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골 3:1~2).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날”이 오면 영광 가운데 재림하셔서(마 26:64, 살전 4:16, 계 1:7, 행 1:10~11) 원수를 정복하실 것입니다. 원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참소하고, 교회를 참소하고, 성도를 참소하는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 마귀를 결박하여 1천 년 동안 가두어 놓습니다. 그 후에 영원한 불못 무저갱으로 던져 세세토록 고통하고 절규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이처럼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믿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다윗 못지않게 성경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기쁘게 믿읍시다.

다윗이 그렇게도 사모하고 증거하고자 했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32).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33). 소원하고 주께 기도하여 성령을 모시고 살아갑시다. 구약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잘 믿었던 다윗처럼 확실한 ‘예수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갑시다.